

국유림 경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on the regional Society

윤여창, 손철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국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21%와 전체 임목축적의 34%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국유림은 지리적, 사회적으로 심하게 격리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오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도심이나 평야지역에 비하여 자연에 대한 의존율과 산림내 임산물의 이용을 통한 생계의존율이 높고, 이들 지역내 주민들은 그 지역내 산림의 관리 또는 경영을 위한 임업노동력을 제공할 인적자원이다.

따라서 국유림에 대한 경영목표로 국유림 소재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국유림경영정책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국유림경영과 지역사회의 관계, 지역주민의 국유림 이용 및 국유림 관련 산림작업 참여 실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사방법

이 연구는 국유림구성비율이 높은 3개지역(봉화군, 평창군, 광양군 및 구례군)을 대상으로 현지 설문조사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시기는 1991년 8월 10일 - 12일(봉화군), 10월 13 - 15일(평창군), 8월 3일 - 5일(광양군 및 구례군)이며, 분석에 이용된 설문조사부수는 각 지역별로 149부, 147부, 151부로서 총 447부이다.

3.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연간 0.1%의 비율로 감소하고 있으나 국유림의 면적은 연간 0.3%의 비율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국유림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는 국유림의 사용허가, 대부 또는 분수 등과 같은 토지자원의 제공, 국유림내에서 이루어지는 산림작업 또는 임산물 생산에 의한 고용기회 창출, 임산물 채취를 통한 가계기여, 국유림내에 시설된 임도와 휴양시설 등의 사회간접시설의 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1991년 한해 동안에 국유림의 약 15%에 해당하는 20만 3천 ha가 토지자원 제공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의해 이용되었다. 그러나 토지이용구분상 지역사회에 의해 이용된 국유림 면적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대부림의 면적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국유림주변 지역사회의 연간소득을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농업소득 58.3%, 임업소득 21.8%, 기타소득 22.1%의 구성비율을 보이며, 이중 임업소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광소득 2.8%, 임업노동 10.5%, 부산물 생산 88.9%의 구성비율을 보였다.

표 1. 국유림 관리면적과 임목축적의 추이

단위 : 1,000ha, 1,000m3

년도	산림면적					임목축적				
	전체	국유림				전체	국유림		m3/ha	
		계	남부 임지	중부 임지	기타		전체	국유림	전체	국유림
1946	6,865	1,455	650	285	520	-	-	-	-	
1971	6,811	1,295	873	311	99	70,770	35,306	10.70	27.26	
1976	6,613	1,309	898	310	99	108,161	46,023	16.35	35.15	
1981	6,562	1,310	902	306	101	151,549	59,176	23.09	45.17	
1986	6,523	1,317	918	295	104	192,931	72,288	29.57	54.88	
1991	6,467	1,367	1,001	245	120	257,297	88,000	39.78	64.37	
연평균 증가율 (1971 - 1991)	-0.1	0.3	0.7	-0.1	0.1	13.1	7.1	13.5	6.8	

표 2. 지역별 연간소득의 소득원별 구성비율

단위 : %

구분	미수입	<10%	20-30%	40-50%	60-70%	70% >	평균	
농업소득	관양	26.8	11.4	26.8	14.1	10.7	10.1	31.2
	관양	12.9	2.7	4.1	8.2	6.1	68.0	75.2
	관양	28.0	1.3	2.0	8.7	2.0	58.0	62.6
평균	22.5	5.1	10.9	10.3	6.3	44.7	56.3	
임업소득	관양	11.4	6.0	24.8	13.4	18.8	25.5	50.0
	관양	73.5	8.2	11.6	4.1	1.4	1.4	7.9
	관양	74.7	13.3	7.3	2.7	-	2.0	6.6
평균	53.2	9.2	14.5	6.7	6.7	9.6	21.6	
가타소득	관양	57.7	9.4	11.4	8.1	5.4	8.1	18.8
	관양	74.8	0.7	6.1	2.4	3.4	1.6	18.8
	관양	58.0	5.3	6.0	6.0	2.0	24.6	30.8
평균	63.5	5.1	7.8	5.8	3.6	14.7	22.1	

표 3. 임업소득의 세부항목별 구성비율

단위 : %

구분	미수입	<10%	11-30%	31-50%	51-70%	70% >	평균	
관양수입	관양	88.6	1.3	2.0	4.0	2.6	1.4	6.4
	관양	99.3	-	-	0.7	-	-	1.4
	관양	94.9	0.7	0.7	1.0	0.3	2.4	2.6
평균	94.9	0.7	0.7	1.0	0.3	2.4	2.6	
임업수입	관양	91.9	1.3	3.4	0.7	2.7	-	3.6
	관양	95.9	-	1.4	0.7	-	2.0	10.6
	관양	-	-	1.3	1.3	-	2.7	17.4
평균	94.3	0.7	2.4	1.0	1.4	0.3	10.5	
부산물수입	관양	30.2	2.0	2.7	2.7	1.3	61.1	90.0
	관양	79.6	1.4	1.4	1.4	0.7	20.4	88.1
	관양	-	-	-	1.3	-	16.6	82.6
평균	54.7	1.7	2.0	2.0	1.0	38.5	86.9	

표 4. 지역별 지역주민의 국유림작업 및 산림부산물생산

지역	수	지역별							계
		미참여	5일 이하	6-10일	11-20일	21-40일	40일 이상		
국유림	관양	10.4	5.2	3.4	1.7	6.0	73.0	99.7	
	관양	8.8	6.2	9.7	3.5	7.0	64.6	99.8	
	관양	13.8	4.0	4.0	2.4	8.1	67.4	99.7	
평균	11.1	5.1	5.7	2.6	7.1	68.4	100.0		
산림부산물	관양	53.0	4.7	2.7	10.0	8.0	21.4	99.8	
	관양	61.9	5.4	10.2	8.1	6.1	8.1	99.8	
	관양	69.3	9.3	8.0	4.6	2.0	6.6	99.8	
평균	61.4	6.5	7.0	7.6	5.4	12.1	100.0		